

## 李昴의 《殺夫》\*

노혜숙\*\*

<目次>

1. 서론
2. 李昴의 《殺夫》
3. 《殺夫》에 나타난 성의 억압과 반항
  - 1) 飢餓와 性的의 관계
  - 2) 林市 모녀의 업보
4. 《殺夫》의 문학적 의의
5. 결론

### 1. 서론

대만의 여성작가 李昴의 《殺夫》는 탁월한 여성주의 소설이다. 대만 문화대학 연극학과 교수인 작가는 이 작품을 1983년 대만 연합보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소설로 대만 연합보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李昴은 대만 여성주의 문학의 기수<sup>1)</sup>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듬해 소설 《暗夜》를 발표하여 더욱 확고한 문학적 기반을 다지게 된다.

李昴은 1952년 臺灣省 彰化縣 鹿港鎮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 臺

\* 본 연구는 2009년 숙명여자대학교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呂晴飛 主編, 《中國當代青年作家評傳》, 中國婦女出版社, p. 281.

426 中國文化研究 第17輯

灣 文化大學 哲學科에 입학하였고, 1975년에는 미국 오리건 주립대에서 회극을 전공하였다. 1978년부터 대만 문화대학 회극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李昴의 문학적 특색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현상과 남녀 문제를 세밀하게 묘사해 나간다는 점이다. 때문에 그녀의 대표작은 《殺夫》와 《暗夜》로 지칭된다. 그 후에 李昴은 대만 주요 신문인 時報의 고정 칼럼 <女性的意見>을 계속 기고하면서 독특한 형식의 소설 《外遇》를 출간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李昴의 관심이 여성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그녀가 몇천년 동안 남성지배문화에 억눌려온 여성의 모든 것, 예를 들면 여성의 혼인문제와 여성심리 그리고 여성의 성 문제에 대해 과감히 칼을 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殺夫》는 대만에서 영화화 될 만큼 많은 논쟁을 야기 시킨 화제작으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번역·출간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殺夫》는 대만 문학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한 작품이다.

《殺夫》에 나타난 성 억압과 반항을 1) 飢餓와 性的의 관계 그리고 2) 林市모녀의 업보 문제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하며, 《殺夫》의 문학적 의의는 여성주의 작품으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는 면과 또한 사회소설로서의 의미 또한 밝혀보고자 한다.

### 2. 李昴의 《殺夫》

李昴은 《殺夫》를 쓰게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李昴이 1976년 미국 방문 길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白先勇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연히 책상 위에 있던 《春申舊聞》이라는 책

자를 펼쳐보게 되었다. 이 책에는 기이한 신화들이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 〈詹周氏殺夫〉에 매료되었다. 침주씨는 본래 불교를 믿는 여인이었으며, 남편은 돼지 도살꾼이었다. 남편은 침주씨에게 돼지 잡는 것을 보도록 강요하였다. 침주씨는 불교신자로 살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싫어했다. 그러나 남편은 침주씨를 취락과 학대의 도구로 여겨 계속 강요하였다. 이런 세월이 지속되면서 침주씨의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그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그를 여덟 토막으로 잘라서 침대 밑에 숨겼다. 그런데 그 방의 방바닥 틈으로 피가 아래층 전대인 집에 흘러들었으나, 전대인은 돼지피인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전대인은 더러운 피로 자기 집을 더럽혔다는 구실로 돼지다리 하나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침주씨 죄가 발견되었고 사형판결을 받게 되었다. 李 昂은 살부의 배경을 鹿港으로 옮겨 소설 《殺夫》를 창작하였다.

소설 《殺夫》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비극의 씨앗은 林市의 어머니가 과부가 되면서 비롯한다.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도리어 억압과 학대뿐이다. 재산을 빼앗고 살 길도 없이 내쫓았으면서도 열절만을 요구하는 것이 여성의 현실이었다. 철저한 유교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임시의 어머니는 아들이 없으니 대를 이을 수도 없고 젊은 과부이니 재혼할거라고 친척들이 하나 남은 집마저 빼앗아버려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등 허드렛일로 끼니를 잇고 사당에서 밥을 지내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다. 어머니는 굶주림으로 두덩이 쌀 주먹밥에 몸을 파는데 이를 알리 없는 임시는 이를 친척들에게 알려 어머니는 부정한 행실로 가문을 더럽혔다 해서 죽게 된다. 임시는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돼지 도살꾼인 진 강수에게 팔려서 시집을 간다. 돼지 도살꾼 진 강수는 돼지 도살과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애도 관심이 없는 짐승 같은 사나이이다. 돼지 도살과 성행위를 동일

시하는 변태적인 사나이인 그는 임시가 성 행위 때마다 돼지처럼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기를 위하여 임시를 난폭하게 다룬다. 고통으로 항상 소리를 지르던 임시는 자신이 행실을 저버린 어머니와 함께 음란한 여자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않는 임시를 진 강수는 폭력으로 그리고 굶주림으로 임시를 위협하나 임시에게 변화가 없자 먹을 것을 일체 주지 않는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임시에게 진 강수는 도살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끌고 간다. 돼지를 도살하는 모습을 보고 임시는 기절을 하고 만다. 극도의 굶주림과 돼지 도살의 충격 등 죽음과 피에 대한 공포로 하여 임시는 정신이상이 되는데, 진강수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과 자신에 대한 성폭력에 자극을 받은 임시는 진강수가 늘 가지고 다니는 도살 칼로 진강수를 살해한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임시의 눈앞에 언뜻 번쩍 스쳐간 것은 어머니를 겁탈한 군복 입은 남자의 얼굴이었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돼지였다. 진 강수는 임시에게 돼지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임시를 억압해온 두 대상을 향하여 임시는 다만 돼지를 도살하는 환상으로 칼을 휘두른다.

### 3. 《殺夫》에 나타난 성의 억압과 반항

#### 1) 飢餓와 性的 관계

性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이다. 중국인의 성 관념에 대해서는 일찍이 《孟子》에 “食色性也”<sup>2)</sup>라는 말처럼 食과 色을 본능으로 인식해왔다. 식욕과 성욕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2) “告子曰：食色性也。”

두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식욕과 성욕은 두 개의 욕망인 듯 하면서 실은 하나의 욕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殺夫》에 나타난 食과 色의 관계는 남성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성 억압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 기아와 성의 관계, 食과 色의 충돌은 남녀 사이의 불행한 역사의 경관이다.

林市는 폐병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다. 임씨 가문에서 쫓겨 난 두 모녀는 허드렛일을 하며 끼니를 잇고 사당에서 생활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거리가 없어져 임씨와 어머니는 굶어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씨는 어머니가 밥 두덩이 때문에 군복 입은 사내에게 겁탈 당하는 것을 보고 친척들에게 알린다. 어머니는 겁탈 당하면서도 주먹밥을 먹기에 정신이 없었다.

아아. 밑에 깔려있는 어머니의 얼굴이여!

거칠고 비쩍 마른 광대뼈 근처로 번져있는 불그스레한 빛깔과 일찍이 없던 생기가 그 얼굴에 흐르고 있었다. 한쪽 손에 한 덩어리 식은 주먹밥을 쥔 어머니의 모습. 밑에 깔린 채 입 안 가득히 밥을 씹고 있는 모습이 어린 임씨의 눈에 선연하게 들어왔다. ……그런대로 입은 여전히 밥을 씹고 있는 채였다.<sup>3)</sup>

임씨와 어머니는 몹시 굶주렸다. 예전부터 남녀사이의 食과 色의 교환관계는 공생의 형태였다. 여자는 성기를 제공하고, 남자는 먹이를 공여한다. 이와 같은 배고픔의 상황에서 여성의 존엄과 인격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친척들에 의해 두 남녀는 기둥에 묶여 있다가, 다시 돌에 매달아 물에 던져졌다. 임씨의 모친은 흰 쌀밥 두덩이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

3) 李昂, 《殺夫》, p. 79. “然後林市看到被壓倒的阿姆, 阿姆的那張臉, 衰瘦臉上有著鮮明的紅艷顏色及貪婪的煥發神情。阿姆嘴裏正啃着一個白飯團, 手上還抓着一團。已狠狠的塞滿白飯的嘴巴, 隨著阿姆唧唧唧的出聲, 嚼過的白顏色米粒混着口水, 滴向滿半邊面頰, 還順勢流到脖子及衣襟。… 嘴裏仍不停的咀嚼着。”

임씨는 숙부 집에서 일을 돌봐주며 지내게 되었는데, 일은 힘들었으나 밥은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다. 몇 년 후에 숙부는 인근 마을의 돼지 도살꾼 陳江水에게 임시를 시집보낸다. 매달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돼지고기 한 근씩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매매혼의 혼인방식이다. 임씨는 돼지고기 몇 근에 도살꾼 진씨에게 팔려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임씨 숙부는 봉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sup>4)</sup>로 그려져 있다. 배고픔에 처한 임씨 모녀는 안중에 없고, 배고픔 보다는 여성의 열절을 요구하며 임씨 모친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 또한 조카인 임시를 부려 먹고, 돼지고기 몇 근에 도살꾼에게 팔아 버리기도 한다.

돼지 도살꾼 진 강수는 그 부근 도살장에서 알아주는 고수였다. 칼을 잡고 돼지를 잡을 때, 그의 칼 숨씨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였다. 도살 대 위에 발이 퐁퐁 묶인 채 버둥대는 돼지를 손에 든 예리한 칼로 목 줄기를 치면 돼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피가 분수처럼 치솟는다. 진 강수는 돼지를 도살하는 이 순간을 성행위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다.<sup>5)</sup> 그래서 성행위를 할 때면 상대편 여자가 돼지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을 원하게 되었다.

진강수의 관념에서 임씨는 다만 그의 성적 쾌감을 발설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으로 취급되는 비인간적인 존재이다. 그는 임씨한테서 돼지 도살 때의 비슷한 쾌감과 수성의 발설로 만족을 얻었다. 임씨와의 성관계는 거칠고 잔인무도하였다.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추악과 수치, 약탈과 압박이다.

이때가 바로 진강수가 전율하는 시간인 것이다. 칼을 뽑아들고 분수처럼 분출하는 피를 보면 진강수의 가슴은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 순간의 기분이란

4) 呂晴飛 主編, 위의 책, p. 282.

5) 古添興, 《讀李昂的殺夫—論對等與婦女問題》, 《中外文學》第14卷 第10期, 1986, p. 44. “돼지 도살과 성행위의 상징작용을 설명하면서 ‘對等原理’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진강수는 돼지 도살과 성행위를 동일시하였다. 즉 도살할 때, 피가 솟구치는 쾌감과 성관계의 쾌감을 동일시하는 것은 강렬한 상징이다.”

마치 체내에서 요동치던 한줄기 뜨거운 혈류가 흰색의 농밀한 점액질로 변하여, 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 듯한 기세로 여인의 어둡고 깊은 곳 속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와 같았다. 진 강수에게는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는 피가 자신이 정액을 분출시킬 때와 거의 비슷한 쾌감을 안겨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6)</sup>

이러는 사이 임시가 성관계 때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온 동네에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은 계속되고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문을 엿본다는 것도 모르고 임시는 매일 울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 순간만 지나면 진강수가 가져온 쌀과 고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때문에, 진 강수는 임시에게 쌀과 고기를 주고 임시는 진씨에게 성을 주었다.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제공하고 물질을 보상받는 것은 성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남성 중심의 성 관계를 나타내는 성의 억압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날, 옆집 사는 아주머니 아망관이 동네 여자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번 아-아 하고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재미 본다는 걸 사들한테 속이러 들어? 그런 계집은 우리 여자들 체면에 먹칠하는 거라구. 이런 얘길 꼭 내 입으로 말해야만 해?<sup>8)</sup>

아망관은 임시가 외설스러워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시 어머니 사건을 이야기했다. 임시는 그 소리를 듣고 온 근육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한참을 서서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망관은 임시네 옆집에 살면서 임시와 친하게 지

6) 李 昂, 《殺夫》, p. 139. "這就是陳江水時刻了, 當尖刀抽離, 血液冒出, 懷藏的是十分至高的滿足, 就像在高速衝擊的速度下, 將體內奔流的一股熱流, 化作濃稠黏液, 噴灌入女性陰暗的最深處, 對陳江水來說, 那飛暴出來的血液與精液, 原具有幾近相同的快感作用。"

7) 林 丹姬, 《當代中國女性文學史論》, 廈門出版社, p. 208.

8) 李 昂, 《殺夫》, p. 164. "那裏要每回喚喚大小聲叫, 騙人不知以為有多爽, 這種查某, 敗壞我們女人的名聲, 說伊還浪費我的嘴舌。"

내는 동네 아주머니이다.

《殺夫》에서 진 강수 인물이 나타내는 상징의의는 남성우월주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sup>9)</sup> 임시를 통해 나타내는 상징의의는 전통사회에서 압박당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러면 앞에서 말한 아망관은 어떤 인물인가? 전통사회의 남성에게서 고통을 겪었으면서 정신이 마비되고 우매하여 남성우월주의의 충실한 전파자가 되어, 기타 다른 여성들을 도살하는 도모자가 되어있는 인물이다.<sup>11)</sup>

임시는 이후 진강수의 모진 폭력과 학대에도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것은 진강수로 하여금 매번 광폭하게 화를 내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진 강수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임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배고픔에 혼수상태에 있던 임시는 꿈을 꾸었다.

임시아 배고파. 엄마가 배고프다구 …… 어디든 가서 먹을 것 좀 얻어다 줄래 …… 배고파 죽겠어.<sup>12)</sup>

진 강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집에는 식량거리가 점점 없어져갔다. 그래서 임시는 새끼오리를 키우기로 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새끼 오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정성으로 오리를 키웠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진 강수는 문을 들어서다가 오리 닭장을 밟아 화가 났다.

그래. 널 배불리 먹여주지 않는다고 날 미워하고 저주하겠지. 이젠 아예 직접 오리를 키워서 혼자 다 해먹고 살겠다 이거냐? 당신이 쌀을 가지고 오지 않는 날도 있어서. 난 ……<sup>13)</sup>

9) 康 原, 〈小說中的象徵意義—小論李昂的殺夫〉, 《文學界》第10期, 1984.05.

10) 康 原, 위의 논문.

11) 康 原, 위의 논문.

12) 李 昂, 《殺夫》, p. 174. "阿市, 我餓了, 餓, 餓了……你去討飯來吃。……餓, 餓了。"

13) 李 昂, 《殺夫》, p. 181. "哦, 你是嫌我餓不飽你, 還要自己倒鴨去換米?" 陳江水陰慘慘的瞅着林市問, "你有時候不帶米回來, 我……"

진 강수는 돼지 칼로 오리들을 죽여 버린다. 임시는 토막 난 오리 시체들을 보며 몸서리친다. 자기 자신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독립의지가 좌절되었다. 임시는 점점 정신이 황폐해져 갔다.

임시가 반항하기 시작한 것은 진강수가 음식을 단절한 후이다. 아니면 임시가 반항한(소리 지르지 않기) 후에 먹이가 끊겼는지도 모른다. 임시에게 중요한 것은 배고픔이다. 임시 꿈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도 항상 배고픔을 호소했다. 배고픔의 문제를 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성기를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먹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에서 경제와 물질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다. 기아는 농축된 하나의 기호이다. 이앙은 계속 기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앙이 공소하고 있는 것은 경제독립은 여성독립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선언이다.

## 2) 임시 모녀의 업보

소설 《殺夫》의 두 개의 이야기 기동은 임시와 모친이다. 임시와 어머니는 전통사회에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존재로써 배고픔 때문에 전통사회 남성에게 성적인 능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피압박 존재이다.

임시는 배고픔과 싸우고 어머니의 기억과 싸운다. 배고플 때마다 어머니의 배고픔이 기억났으며, 배고픔은 공포가 되었다.

임시가 성 관계에 저항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던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들과 사통하다가 친척들에게 들켜서 목숨까지 잃었고, 그녀의 딸 임시도 그런 부정한 에미를 닮아서 관계를 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댄다는 것이었다. 임시는 그런 소리를 엿듣고 있다가 놀람과 두려움 때문

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지어놓고 나니, 진강수가 들어와서 다시 임시를 능욕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임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서 입에서 피가 나왔다. 임시가 두려운 것은 '부정한 에미를 닮아서'라는 말이 배고픔만큼 무서웠다. 임시는 어머니의 운명을 탈퇴할 수 없었으며, 어머니의 운명을 중복하고 있었다.

古添洪은 〈讀李昂的殺夫〉에서 《殺夫》의 특징을 譎詭感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sup>14)</sup> 즉 고전소설 속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며, 인과·보응·업보 등의 모티프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진임시가 남편을 죽인 사건은 독성에서 오랫동안 시끄러웠다. 신문과 경찰에서는 정부가 배후 조정했을 것으로 이야기 한다. 독성에 전해지는 말로는 임시의 어머니가 와서 보복을 한 업보라고 하였다.<sup>15)</sup>

임시는 먹을 밥이 없었다. 배고픔은 마음 속의 어떤 공포보다도 강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임시는 먹을 것을 얻으러 길거리로 나섰다. 한 끼 밥을 먹었으나 일자리는 얻지 못했다. 진 강수는 임시가 일자리를 얻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살장에서 내장 담는 일을 시킨다. 그러나 임시는 진강수가 돼지 잡는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돼지 잡는 모습을 보고 놀란 임시는 이제 더욱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눈이 충혈된 채 거리를 활보했다.

마음이 착한 아저씨. 친절한 마음으로 한 푼만 적선하세요. 엄마에게 관을 사드릴 거예요. 우리 엄마는 강간을 당해서 우물에 뛰어들었대요. 내 뺨 속에 있는 허들이 말해줬어요. 엄마는 온몸이 젖었는데 갈아입을 옷도 없고 배가 너무 고프대요.

14) 古添洪, 위의 논문.

15) 李昂, 《殺夫》, p. 77. "陳林市謀殺親夫這件事, 在鹿城喧嚷了許久。盡管報紙與辦案人員強調奸夫指使, 整個鹿城却私下傳言, 是林市的阿母回來報復/復的一段冤孽。"

엄마한테 옷 몇 벌하고 밥 한 상 차려주고 싶어요. 맘 착한 아저씨 적선하세요. 한 푼이면 돼요. 네?<sup>16)</sup>

죽은 어머니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진 강수는 11월 추운 날씨인데도 종이로 만든 오색인형을 보자 요사스런 분위기에 놀라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었다. 엄마 욕을 하자 “우리 엄마에게 욕하지마”한다. 임시는 어머니의 화신이었다.

임시는 기어서 일어나 몸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다리를 감싸 안았다. 그대로 웅크리고 앉은 채 멍청하게 창문 틈으로 비쳐 들어오는 창백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줄기 으스스한 달빛이 느릿느릿하게 점차 침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임시는 그 달빛을 뚫어져라 응시하였다. 그 한줄기 달빛은 마치 무엇인가에 인도되는 것처럼 점점 가까이 다가와 칼에 닿았다. ……임시는 두 손으로 칼을 꼭 쥐고 앞에 누워있는 물체를 단칼에 썰었다.<sup>17)</sup>

시커먼 어둠 속에서 임시의 눈앞에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복 입은 남자의 얼굴, 즉 어머니를 강간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두 번째로 스쳐지나간 것은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돼지였다.

그가 죽인 것은 진 강수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강간한 군인이었고, .임시는 그들을 인간이 아니라 돼지라고 생각했다.

어떤 힘이 임시의 폭력을 야기 시켰는가? 임시에게 감추어져 있던 억압의 분출이었다. 억압이 계속되니 반항과 보복이 있게 되었다.

임시가 ‘두 손으로 칼을 쥐고...단 칼에 찌른’ 살부 심리에는 복잡한 심층구조로 이루어졌다. 임시는 배고픔의 공포를 견디고 있었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리 키우기’를 시도 했으나, 남편에 의하여 자

16) 李 昂, 《殺夫》, p. 196. “好心人啊! 好心好行, 一文錢給我, 我給阿母燒大厝。我阿母被強奸, 跳古井死了, 我肚裏的舌頭跟我說伊渾身濕透透, 沒衣可換, 沒東西吃, 肚腹真餓。我要給我阿母燒幾件衫褲, 辦一桌菜, 讓伊有衫穿、不會餓。好心人啊, 好心好行, 給我一文錢……”

17) 李 昂, 《殺夫》, p. 198. “林市爬起身, 彎曲身子以雙手環抱住脚, 楞楞的坐着看着從小窗隙中照射進來的一長條青白月光, 白慘慘的月光一點一寸緩緩在床板上移動。林市定定的凝視着那月光, 像被引導般, 當月光爬到觸及刀身時, 閃掠過一道白亮亮反光。林市伸手拿起那把屠刀。”

립이지가 좌절 되었다. 그리고 진 강수는 밥을 구걸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임시를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 그 곳에서 임시는 돼지를 도살하는 진 강수를 보고 정신착란 상태가 된다. 이 양은 임시를 정상아 아닌 정신착란 상태로 만들어 살부의 면죄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임시의 살부 심리는 모친과 깊은 연계를 이룬다. 그날 밤, 진 강수는 임시를 능욕하며 ‘네 에미를 범할거다.(幹妳娘)’ 라는 진 강수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임시를 죽이겠다고 들어대던 돼지칼, 임시의 살부는 정당방위인가? 임시가 단 칼에 찌른 것은 인간이 아니라 관념이었다.

李 昂은 《殺夫》에서 예술의 상징법을 사용하고 있다. 진 강수는 남성우월주의의 상징이고, 진강수의 죽음은 남성우월주의의 소멸인 것이다.<sup>18)</sup> 李 昂은 임시를 통하여 ‘성만항’의 투쟁형식을 택했으며 이것은 바로 죄악의 봉건세력과 투쟁하는 것이었다. 《殺夫》는 바로 이러한 싸움의 생동하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임시와 임시 모친, 두 세대에 걸친 여성 운명을 묘사하며 봉건세력의 죄행을 폭로했다.

#### 4. 《殺夫》의 문학적 의의

《殺夫》에 있던 신문기사 내용이다.

남편을 토막살해한 음부를 시내로 끌고다니며 조리돌림한 진림시의 臺南 행렬은 사회의 풍기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정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시경의 부녀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충분히 경각심을 일으켜 남녀평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서양식 사회 예법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최근 남녀평등. 나아가 여성 상

18) 呂晴飛 主編, 위의 책, p. 282.

위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다니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보이는 일에 나 열심이지. 여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등진채, 천여년간 면면히 이어진 우리 고유의 부덕을 손상시키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뜻 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아 무너져가는 婦女之道를 다시 회복하고 재정립하는 운동이 일기를 바란다.<sup>19)</sup>

신문기사에는 사회여론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녀운동을 비판하고 여성운동가들의 기량을 꺾으려고 했다. 여성이 남성의 압박으로 비극에 이르는 것을 감추려하고 있다. 범죄자가 보기 좋게 꾸며졌고, 강간당한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

진 임시는 이제 굶주림과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있던 보잘 것 없는 약한 여자가 아니다. 도살용 칼로 찌른 것은 진강수도 돼지도 아니고, 남성우월주의의 전통사회였다. 생명의식이 비로소 소생되었고, 여성주의는 승리하였다. 李 昴은 주제의식이 강한 작가로 남성우월주의를 통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학대받는 여성을 상징하여 주제가 심화되었다.

임시의 꿈에 등장하던 龍柱가 있다.

하늘 높이 뻗어서 구름 위까지 솟구친 여러 개의 커다란 기둥이 시커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게 되더니, 갑자기 우레 소리가 저 멀리에서부터 가까이 우르릉 광광거리며 들이닥치더니만, 불꽃이 튀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기둥이 완전히 새까맣게 되어버렸어요. 거기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다시 보니 그때서야 한참만에 새까만 기둥들이 갈라진 틈들 새로 빨간 피가 흘러 나오지 뭐예요.<sup>20)</sup>

19) 李 昴, 《殺夫》, p. 76. “轟動一時的陳林市謀殺親夫一案, 雖查不出奸夫, 但以陳林市這倫, 罪大惡極, 判決監候槍斃, 昨已送進臺/廳南府大車。爲應社會輿論、民俗觀情, 在送大車前特將陳林市綁在送貨卡車上, 由八名刑警監押, 另一人打羅游街。陳林市所到, 真是人山人海, 萬人空巷。然有觀者稱惜, 謂陳林市既不美貌, 又不曾看到奸夫, 游街因而不十分好看。然將謀害親夫之淫婦游街示衆, 有匡正社會風氣之效, 故此陳林市之游街, 雖少奸夫仍屬必需, 相信婦輩看了能引以爲戒, 不致去學習洋人婦女要求什麼婦女平權、上洋學堂, 實際上却是外出拋頭露面, 不守婦戒, 喪我千年婦女名訓。寄望這次游街, 可使有心人土出力挽救日愈低落的婦德。”

20) 李昴, 《殺夫》, p. 82. “接下來的夢境, 是幾支高得直聳入雲的大柱子, 直插入一片墨色的漆黑裏不知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에 따르면 기둥은 남성 생식기이고, 시커먼 어둠 속은 여성 생식기이다. 남근사회와 반부계사회의 가치의 관념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새까만 기둥 사이에 흘러나오는 피는 혁명의 피이며, 이 양의 여성주의 혁명의 피이다.<sup>21)</sup> 이 소설이 여성주의 의견이 뚜렷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李昴은 또한 여성의 잠재의식 속에 잠재된 폭력을 발휘하여, 지난 남성주의 사회의 가치를 엄단할 생각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했다.<sup>22)</sup>

吳錦發의 〈略論李昴小說中的性反抗〉에 나타난 성반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①잔류된 봉건제도의 반항, ②남성우월주의로 형성된 사회규범에 대한 반항, ③전통적인 성·혼인·죄에 대한 질의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 뜻은 李昴 소설이 사회비판의식이 상당히 치열한 것임을 분석했다. 李昴의 《殺夫》는 여성주의 소설이면서 사회소설의 의의도 함유하고 있다.

## 5. 결 론

일반적으로 李 昴을 性的 작가라고 호칭한다. 왜냐하면 많은 작품에서 性的 문제를 제기하고 묘사하였다. 여성작가로서 性的 주제를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는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殺夫》가 발표되면서 부터는 더욱 심하였다. 사람

所終, 突然間, 一陣雷鳴由遠而近, 轟轟直來, 接着轟隆一聲大響, 不見火焰燃燒, 那些柱子片時裏全成焦黑, 却仍直挺挺的挺立在那裏, 許久許久, 才有濃紅顏色的血, 從焦黑的柱子裂縫, 逐漸的滲了出來。”

21) 康 原, 위의 논문.

22) 朱 衛誠, 〈女性作家的天空—蔡源德與李昴對話〉, 《臺北評論》第3卷, 1988.

23) 吳 錦發, 〈略論李昴的性反抗〉, 《愛情試驗》, 臺北: 洪範書店有限公司, 1992.

들은 《殺夫》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부녀가 살부하는 것을 조장한다는 부도덕의 죄명을 쓰게 된다. 이 앙은 자신의 창작의도가 이해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sup>24)</sup>

이 앙에게 창작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진실'이라고 답변하였다.<sup>25)</sup> 《殺夫》를 부도덕한 소설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볼 수 없는 것이 부도덕이다"<sup>26)</sup>고 말한 것은 이 앙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 진실은 전통사회 남권주의의 죄악을 밝히고 여성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李昂은 《殺夫》의 창작의도에 대하여 "대만사회에서 兩性의 문제를 탐토타하여, 전통사회에서 압박받은 부녀의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고자하는 하나의 선언문이다"<sup>27)</sup>라고 밝혔다. 강렬한 여성주의 문학의 창작의도를 밝혔다.

《殺夫》에 나타난 성 억압과 반항의 과정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1)飢餓와 性의 문제, 2)林市 모녀의 업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통 남성 중심사회에서 자행되던 남녀 사이의 음식과 성의 교환 관계를 임시 모녀의 불행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여성의 경제 자립을 여성독립의 해답으로 제시한다.

임시는 성 압박의 상태에서, 반항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휘둘던 진강수의 돼지 칼을 잡고 남편을 살해한다. 전통의 남성중심사회에 칼을 쫓는다. 임시는 승리하였다.

《殺夫》의 진강수는 남성우월주의를 상징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권사회에서 성의 억압을 자행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압박

24) 李昂, 《新納癡思解說—李昂的自剖與自省》, 《暗夜》, 臺北: 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p. 176.  
 25) 李昂, 위의 글, p. 170.  
 26) 李昂, 《我的創作觀》, 《文學界》第10卷, p. 34.  
 27) 蔡英俊, 《女作家兩種典型及其困境—試論李昂與廖輝英的小說》, 《文星》110期, 1987, p. 98.

당하는 여성을 상징하는 임시는 남성우월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여성의 생명력을 창조하였다.

《殺夫》의 문학적 의의는 여성주의문학으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남성주의로 형성된 사회규범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므로 사회소설의 의의도 또한 평가받고 있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李 昂, 《殺夫》, 臺北, 聯經, 1983.  
 呂晴飛 主編, 《中國當代青年作家評傳》, 中國婦女出版社, 1990.  
 林丹妮 《當代中國女性文學史論》, 廈門出版社, 1995.  
 古添洪, 《讀李昂的殺夫—談論對等與婦女問題》, 《中外文學》第14卷 第10期, 1986.03.  
 朱衛誠, 《女性作家的天空—蔡源煌與李昂對話》, 《臺北評論》第3卷, 1988.01.  
 呂正惠, 《性與現代社會—李昂小說中的性主題》, 《小說與社會》, 臺北: 聯經, 1988.  
 李 昂, 《我的創作觀》, 《文學界》第10卷, 1984.05.  
 康 原, 《小說中的象徵意義—小論李昂的殺夫》, 《文學界》第10期, 1984.05.  
 李 昂, 《新納癡思解說—李昂的自剖與自省》, 《暗夜》, 臺北: 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6.01.  
 蔡英俊, 《女作家兩種典型及其困境—試論李昂與廖輝英的小說》, 《文星》110期, 1987.08.  
 吳錦發, 《略論李昂的性反抗》, 《愛情試驗》, 臺北: 洪範書店有限公司, 1992.  
 許振江 記錄, 李昂作品討論會.  
 曹正文, 《李昂談殺夫及性描寫》, 《新民日報》, 2001.08.  
 李昂 지음, 노혜숙 옮김, 《살부》, 시선, 1994.  
 송명희 외, 《페미니즘과 우리시대의 성담론》, 새미, 1998.  
 김진기·조미숙·황수진 공저, 《페미니즘 문학의 이해》,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中文提要〉**

台灣作家李昂的《殺夫》是卓越的女權主義小說。一九八三年，這部作品發表於台灣的《聯合報》上，並獲當年《聯合報》中篇小說首獎。《殺夫》所呈現的性壓迫和反抗，可謂革新。這篇論文把這分為 1，飢餓和性的問題， 2，林市母女的悲報 等兩個側面進行分析。《殺夫》里的陳江水象徵着大男人主義，他們在傳統的男勸社會里執行對女性的性壓迫。傳統社會里被壓迫的女性的象征者林市打破了男勸主義，創造了新女性生命力。《殺夫》的文學意義是，它是一部女性主義文學有无可辯駁地地位。對傳統男權主義而形成的社會規範的社會意識強，也有社會小說的意義，這也可受評價。

**關鍵詞:** 李昂, 殺夫, 女性主義文學, 臺灣文學, 女性文學

이 논문은 2010년 11월 18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